

증평 이성산성과 道西·都西·道安縣

강민식*

-
- I. 머리말
 - II. 이성산성과 柵城山城
 - III. 이성산성 축성과 삼국의 각축
 - IV. 신라의 북진로와 550년 道薩城 전투
 - V. 都西·도안현과 이성산성
 - VI. 맺음말
-

I. 머리말

증평 이성산성은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의 현황과 수습된 유물을 바탕으로 3세기 후반~5세기 중반까지 사용한 산성으로 밝혀졌다.¹⁾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의 결과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²⁾

이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등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두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후 두 편의 논고가 발표되면서 이성산

* 충북대학교 강사

- 1) 忠淸專門大學博物館, 1997. 『曾坪 二城山城』, 충청북도증평출장소, 153쪽.
- 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11b. 『曾坪 二城山城 I - 南城 南水門址 -』, 증평군; 2011c. 『증평 이성산성 정비·활용방안을 위한 기초학술세미나』; 2012. 『曾坪 二城山城 I - 南城 北東門址 -』, 증평군; 成正鏞, 2012. 「曾坪 二聖山城 出土 土器樣相과 그 性格」 『湖西考古學』 27, 호서고고학회.

성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성정용은 이성산성 남성 출토 토기의 분석을 통해 이 성이 4세기 전반에 축성된 것이라 하였다. 다만 북성의 성벽과 주거지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면서 남·북성의 구체적인 선후 관계는 유보하였다.³⁾ 양기석은 증평지역에 백제가 진출한 시기를 3세기 중반~4세기 전반 어느 시기로 보았다. 이후 이성산성은 4세기 전반대에 축조되었고, 금강 중류지역 진출을 피하던 고구려의 도서현 치소로 기능하였고, 이후 도살성 전투를 통해 신라가 증평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⁴⁾

이성산성은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으로 미루어 4세기대 백제의 축성과 고구려의 영유, 6세기 중반 신라의 차지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듯 싶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성 이후 고구려의 점유와 운영, 그리고 550년 이후 신라의 영유 정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별다른 이의 없이 이성산성의 위치를 문헌기록에 보이는 柵城山으로 본 것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역대 지리지에 이성산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1899년 직전에 이르러 비로소 별개의 산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성산성의 축성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4세기대라는 폭넓은 시기를 설정하였으나 대규모 토축 산성의 공력을 고려할 때 이성산성의 축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산성의 축성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초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성산성 내에서 고구려와 연관할 만한 어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구려 道西縣 설정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삼국이 점점을 이루던 550년 도살성 전투의 현장

3) 成正鏞, 앞의 글(2012).

4) 양기석, 2012.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으로 이성산성 일대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고구려의 도서현 점유나 이성산성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끝으로 이성산성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을 중평지역의 지리연혁에서 찾고자 한다. 1914년 군현 폐합 이전 중평지역은 청안현에 속한 곳으로, 옛 도안현이 청당현에 흡수되면서 이성산성은 이때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려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성산성은 치소나 거점성, 혹은 삼국 전쟁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성산성의 축성과 폐성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I. 이성산성과 柵城山城

먼저 이성산성 관련 문헌기록을 살펴보자. 이 산성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록 속의 柵城山⁵⁾이 곧 산성이 위치한 곳이라 보고 있다.⁶⁾ 조선 전기의 추성산은,

柵城山,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청안현, 山川]

고 하여, 산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위치만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지금까지 이성산성의 위치를 이해하는 첫 근거로 이해해

5) 柵의 음은 감탕나무 뉴, 수갑 추, 싸리 축 등으로 불린다. 처음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산에 위치한 산성의 형태가 수갑 모양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추성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성산성의 위치를 기록 속의 柵城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추성산’이라 하겠다.

6) 閔德植,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研究』 36, 한국사학회, 10~12쪽.

왔다. 그것은 같은 책 청안현 제영에 실린 陳義貴(?~1424)의 ‘柵城白雨’에, ‘孤城倚翠嶺’이란 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곳 산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⁷⁾

추성산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에 그대로 전제되었고, 이곳에 산성이 있다는 기록은 『大東地志』에 이르러 처음 보인다.

道安古城, 柵城山에 있으며 터가 남아 있다. [『大東地志』 권6 淸安, 城池]

위 기록은 산성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기록인 셈이다. 그런데, 이성산성을 염두에 두고 추성산의 위치를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 다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의 거리를 주목하자.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청안현 山川 頭陀山[在縣西二十里] 柵城山[在縣西二十里]	청안 山水 頭陀山[西北二十里] 柵城山[西二十里 右二山鎮川界] 顏子山[西十五里]
鎮川縣 산천 頭陀山[在縣東二十一里]	진천 산수 頭陀山[東二十一里 淸安界 山上平凹可處萬人有井泉]
청안현 古跡 古道安[在縣西十五里]	청안 城池 道安古城[在柵城山 有遺址]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자료의 두타산과 추성산의 거리는 같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청안현 고적 ‘古道安’은 서쪽 15리에 있다 하여 추성산과는 거리 차이를 보이는데, 『대동지지』에는 그 15리에 顏子山이 있고 도안고성은 추성산에 있다 하였다.

먼저 이성산성이 추성산에 있다는 기존의 이해에 따르면 거리에 혼란이 있다. 서쪽 17리에 있다 한 時和驛을 증평읍 미암리 시화 마을로 비

7) 閔德植, 앞의 글(1983), 11쪽; 장준식, 2011. 「증평 이성산성에 관한 문헌검토」 『증평 이성산성 정비·활용방안을 위한 기초학술세미나』, 중원문화재연구원, 20쪽.

너 추성산과 안자산 아래쯤이 맞다. 또 <대동여지도>의 추성산의 古城 표기는 지금의 미호천 본류인 백곡천·초평천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어 이성산성으로 비정하기에도 적당치 않다.

이러한 오류와 달리 1872년 청안현 군현지도에는 추성산을 보다 동쪽의 산자락에 표기하였다. 군현지도의 산줄기는 대체로 <대동여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안자산을 두타산과 나란하게 바로 아래쪽에 그린 점이나 두타산 산줄기의 동쪽에 추성산을 표시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그려진 두 지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에는 지금 증평의 북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친 두타산이 보이고 있고 그 앞쪽으로 서향하는 안자산과 남서향 하는 이름 없는 두 줄기의 산자락이 있다. 사실 이 그림의 逸名 산자락에 이성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은 1899년 간행된 『청안군읍지』의 지도를 통해 종식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군현지도에 비해 비교적 정확히 그려진 이 지도에는 두타산과 추성산, 그리고 二城山이 따로 그려져 있다.⁸⁾



<그림 2> 청안군읍지(1899년)

위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두타산, 안자산, 추성산과 달

8) (재)중원문화재단연구원, 2011a.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 완료약보고서-』, 7쪽.

리 별도의 이성산이 표기됨으로써 이제 이성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런데 비록 지도에는 두타산·추성산·이성산을 달리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읍지의 내용은 앞선 지리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청안군읍지』의 지도에 처음 보인 이성산은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朝鮮輿輿勝覽』(1937) 괴산군 산천에 尼聖山이라 하였는데,

頭陀山, 군 서쪽 20리에 있다. 楸城山, 군 서쪽 20리에 있다. … 尼聖山, 군 북쪽 15리에 있다. 顔子山, 군 북쪽 10리에 있다. [『조선환여승람』 충청북도 괴산군, 山川]

고 하여 추성산에 이어 새로이 尼聖山을 수록하였고, 앞서 서쪽 15리 지점에 있던 안자산은 북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안자산은 두타산과 나란하게 34번 국도를 사이에 둔 산줄기로 볼 수 있겠으나 이성산보다 멀리 있는 이 산을 북쪽 10리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시 이성산의 연혁을 살펴보면, <대동여지도>에 청안에서 음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하천을 건너 巴峴을 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이성산성 북쪽 도안면 노암리 뱀터 마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혹 이 사현과 훗날의 표기인 尼聖山이 같은 곳이 아닐까 한다. 곧 巴와 尼는 언뜻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지도(1918)나 『조선환여승람』 편찬 단계에 이르러, 이성산은 尼聖山이라 불리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에 비로소 지금의 두타산성과 별개의 토축 城址를 언급하였다.⁹⁾

番號	種別	場所	所有	摘要
31	城址	曾坪面彌岩里	尼聖山 國有林	彌岩里ノ東方十町尼聖山頂ニ在リ土築ニシテ周二百五十間高サ一間幅四尺完全ナリ地元住民ハ民堡ト稱ス
33	城址	道安面峴村里	忠北地方費 模範林	石築ニシテ槐山, 鎮川二郡ニ跨リ周圍凡五百間高サ四尺幅九尺半廢頽セリ

9)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충청북도), 괴산군, 18쪽.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기록은 이성산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내용에 ‘주민이 民堡라 칭한다’고 하였으니 산성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자료의 이성산성은 250間으로 대략 북성의 둘레(429m)와 비슷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괴산군 33번(두타산성)은 『槐山郡誌』(1969)에 그대로 옮겨져, 이성산성을 ‘蜿蜒 3.5km의 周를 가진 石築의 山城’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이성산성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尼聖山이란 명칭을 얻기까지 이곳에 대한 비정은 일단 柵城山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巴峴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현은 1899년 직전에 이르러서야 二城山이란 명칭을 얻게 되었고, 실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이성산성 북성에 대한 제원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성산성이 조선시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도안현의 폐현에 따른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대동지지』의 편찬자는 역사 속의 도안현 치소를 당시까지 古城으로 전해오던 지금의 두타산의 성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성과 남성, 2개의 성을 염두에 두고 柵를 추라고 음독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이 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두타산성의 고유 명칭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추성산과 이성산이 별개의 명칭임이 분명하며, 지금의 두타산성은 柵城山城으로 부르길 제안한다.

Ⅲ. 이성산성 축성과 삼국의 각축

먼저 이성산성의 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중평 일대의 문화유적을 살펴보자. 이성산성 주위의 지리적 범주는 단순히 중평군 일대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금강 지류인 미호천과 한남금북정맥의 산줄기로 시야를 넓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산성 축성 이전 증평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은 천변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증평 석곡리 유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주거지 1기와 청동기시대 가락동 유형의 주거지 2기가 함께 조사되었다.¹⁰⁾ 그리고 인근의 송산지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¹¹⁾

한편 이성산성이 운영되던 시기에 가장 가까운 유적은 증평 증천리 유적의 주구토광묘다.¹²⁾ 서쪽 경사면에 자리한 토광묘의 크기는 510×150cm이며, 3m 간격을 두고 길이 1,280cm, 너비 65~100cm 크기의 주구를 갖춘 형태이다. 토광 바닥에서 약간의 호편을 수습하였으나, 형식이나 주구토광묘의 편년 자료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증천리 유적의 주구토광묘의 형식은 천안 청당동 유적과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구토광묘는 천안 청당동(곡교천)과 공주 하봉리·장원리 유적을 기점으로, 청주 일원과 진천 신월리 유적 등은 미호천 수계에 분포하고 있다. 증천리 유적의 주구토광묘는 비록 1기에 불과하지만, 미호천을 통해 연결된 문화적 속성은 우리가 살펴볼 이성산성의 축성 주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성산성과 가까운 거리의 유적으로는 청원 풍정리 유적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 백제 때의 주거지 1기와 구상유구 1기를 조사하였는데, 주거지는 5柱式의 방형으로 4세기 후반대로 편년하였다. 구상유구는 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는데 주거지보다는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¹³⁾ 반면 주거지 내부에서 수습된 토기 중 바닥층에 비해 높은 위치에서 발견된 완형의 장경호와 단경소호는 구상유구와 관련된 것으

10)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1. 『曾坪 石谷里 遺蹟 - 증평 대충골프장 조성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1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0. 『증평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증평 송산리유적』.

1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증평 증천리 유적 - 증평 초중~장동간 도로공사 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 증평군.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淸原 大栗里·馬山里·楓井里遺蹟』.

로 보아, 주거지는 경질무문토기질의 심발형토기와 원저단경호를 표식으로 하여 4세기 중·후엽, 구상유구는 4세기 말~5세기 초로 보기도 한다.¹⁴⁾

이처럼 증평 증천리 유적의 주구토광묘와 청원 풍정리 유적의 주거지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이성산성의 축조 시점의 고고학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성산성 내에서도 고지성 취락¹⁵⁾ 같은 광범위한 주거 유구들¹⁶⁾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호천 유역을 다시 세분하면 원삼국 후기에 송절동·봉명동의 중심권역, 그리고 미호천 북쪽의 오창권역, 청주 남쪽의 분평동·산남동권역으로 나뉘고, 4세기 들어 봉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점차 통합되어 갔다고 한다.¹⁷⁾ 곧 이성산성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보단 청주를 중심으로 미호천 상류의 역사 전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성산성 남성의 출토유물은 미호천 건너 송대리유적의 기종 구성이나 기형 등과 유사하여 토기 생산과 공급망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며, 4세기 전반~중반을 중심연대로 한다. 나아가 출토 토기의 양상이 서쪽으로 연기 응암리 환호취락, 동쪽으로 충주 금릉동유적과 서로 공유하는 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¹⁸⁾ 이러한 토기의 양상은 이성산성의 운영 시기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성산성 축조 집단의 외연은 북쪽으로 오창 일원, 서쪽으로 연기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방면까지 넓혀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여러 유적의 조영주체로서 이 시기의 증평지역에는 독립된

14) 조상기, 2007. 「청주지역 원삼국~백제시대 생활유적 토기 상대편년 연구」 『先史와 古代』 26, 한국고대학회, 57쪽.

15)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94쪽.

16)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a.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 완료약보 고서 -』, 16쪽.

17) 조상기, 앞의 글(2007), 44~49쪽.

18) 成正鏞, 앞의 글(2012), 60쪽.

소국이 존재했거나,¹⁹⁾ 아니면 미호천 유역에 성립한 國을 구성하였던 읍락 세력²⁰⁾이 자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산성은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반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던 청주의 국읍세력²¹⁾이 백제 중앙의 관여 하에 이들을 동원하여 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그렇다면 이성산성 남성처럼 둘레 1,411m에 달하는 대규모의 산성을 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삼국사기』 등 소략한 문헌기록에서 그 연유를 이해할 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凡마한계의 제지 문화적 속성 중에서 이성산성 축조의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산성 축조에 따른 力役 동원의 실재나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통해 그 배경을 가늠해볼 따름이다.

이미 4세기 전반 백제의 중앙세력이 증평지역에 진출한 것으로,²³⁾ 이들 주도 하에 이성산성 남성은 4세기 전반경²⁴⁾에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성의 축조 시점에 대해서는 4세기 후엽,²⁵⁾ 5세기 무렵²⁶⁾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북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벽을 파괴하고 조성한 주거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성벽을 파괴한 3호 주거지를 5세기 전반으로 볼 경우 성벽 축조 시기는 이보다 빠르다는 전제 하에 도출된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성산성 남성은 4세기 후반 이전, 북성은 그 직후로 두 성곽은 축조 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성산성 축조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산성이 백제의 남방 진출

19) 양기석, 앞의 글(2012), 5쪽.

20) 朴重均, 2010. 「美湖川流域 原三國時代 墳墓와 社會集團」,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4~175쪽.

21) 朴重均, 앞의 글(2010), 175쪽.

22) 成正鏞, 앞의 글(2012), 61쪽.

23) 양기석, 앞의 글(2012), 8쪽.

24) 成正鏞, 앞의 글(2012), 61쪽.

25) 박중균, 2013. 「증평 이성산성 출토 토기 및 주거지의 성격과 편년」 『증평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와 사적화 방안』, 한국성곽학회·증원문화재단연구원, 82쪽.

26) 成正鏞, 앞의 글(2012), 61쪽.

의 거점지역으로²⁷⁾ 그 축조 시기는 4세기 후엽²⁸⁾으로 보고 있다. 백제가 왜나 가야와 통하는 루트에 거점성으로서 이성산성을 쌓은 것이라고 본다면, 『日本書紀』神功紀 49년조(369)의 가라 정벌과 4읍 병합 기사에 나타난 백제군의 군사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4세기 후반 한성에서 한반도 남단에 이르는 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로서 이성산성의 축성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4세기 들어 충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철생산 유적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략물자인 철의 수요가 급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중앙세력은 충주 일대의 철 산지와 진천지역의 철 생산지를 갖추게 되었고²⁹⁾ 이들 철 생산 관련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으로서 이성산성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실제 이성산성 남성의 남문터에서 수습한 소구경 통풍관 2점은 성내에서 철기 제작이 이루어진 유물로서, 철생산 유적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정황은 미호천 유역의 성곽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고분 유적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상류의 진천 대모산성, 증평 이성산성, 그리고 하류의 세종 테피산성(부강리 토성)은 반경 20km 이내의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³¹⁾ 만일 청주 정북동 토성을 중심으로 설정한다면 상류와 하류에 걸쳐 낮은 산자락에 토축 산성을 쌓아 외곽 방어선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성산성 북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축성되어 다소 복잡한 평면 구성을 보이는 점에서 북성의 축조 배경이 자못 궁금하

27) 양기석, 앞의 글(2012), 14쪽.

28) 박중균, 앞의 글(2013), 82쪽.

29) 오욱진, 2012.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와 성격」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62~64쪽.

30)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11b. 『曾坪 二城山城 I - 南城 南水門址 -』, 증평군.

31) 차용걸, 2013. 「증평 이성산성의 성격과 특징」, 『증평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와 사적화 방안』, 한국성곽학회·중원문화재단연구원, 11쪽.

다. 남성에서 보이던 경질무문토기가 북성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광구장경호³²⁾나 흑색마연토기³³⁾ 등을 주목하면 북성의 축성 내지 운영에는 백제 중앙세력이 주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남성과 북성의 축조 기법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북성에서 유독 전형적인 백제 토기가 발견되는 점은 중앙세력의 직접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광개토왕릉비>의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왕의 두세 차례 南征을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때의 남정은 『삼국사기』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광개토왕릉비>를 참고할 때 당시 백제의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파상공세에 대해 백제의 대처가 여러 차례의 군사 동원으로 이어지고, 417년(전지왕 13) 동부와 북부의 인력을 동원하여 沙口城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다. 실제 4세기 말 직후 백제는 고구려군의 남하에 대해 어떻게든 대처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산성 남성이 보다 느슨한 상태에서 백제의 남방 경영과 철 자원 확보를 위한 거점성으로 기능했다면, 대규모의 포곡식 산성인 남성의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성을 쌓고 북성도 축성 내지는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성산성은 한성기 백제의 대외교류의 주요한 거점, 또는 철 생산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광개토왕의 백제 공략에 따라 한층 방어력을 고려한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성산성은 한동안 백제가 영유하던 곳으로 볼 수 있겠다. 이성산성의 운영과 점유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아 중평 지역의 지리 연혁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곳의 연혁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2) 成正鏞, 앞의 글(2012), 61쪽.

33) 박중균, 앞의 글(2013), 82쪽.

漢州 黑壤郡 … 영현이 둘이다. 都西縣은 본래 고구려의 道西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道安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한주 흑양군]

라고 하여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道西縣이었고, 신라 때 都西縣이라 바꿔 부르며 9주 중 한주 소속 흑양군(진천)의 속현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백제의 점유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곧바로 고구려 道西縣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시기인가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550년 백제와 고구려 양국의 다툼 속에서 끝내 신라가 차지하는 道薩城을 바로 이 산성과 두타산성에 비정한다면,³⁴⁾ 6세기 중엽까지 한동안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군이 미호천 유역에 닿은 사실은 세종 남성골유적과 대전 월평동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한강 이남에서 군현을 설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³⁵⁾ 증평지역에서 고구려 관련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의 도서현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5세기 중반 이후 삼국의 전투가 주로 泥河로 대표되는 남한강 상류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던 점을 감안하고, 또 청주 지역에 백제의 군사력이 엄연한 상태에서 미호천 일대에서 과연 고구려의 군현 지배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494년 살수지원 전투 이후 미호천 상류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였다면,³⁶⁾ 고구려의 증평지역 점유는 적어도 일시적이거나 단지 경유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494년 이후 이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여 북진로를 개척하면

34) 閔德植, 앞의 글(1983), 47쪽.

35) 張彰恩, 2010.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漢江 流域의 領域方向 -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高地’의 實際(Ⅱ) -」 『白山學報』 88, 백산학회, 241~244쪽.

36) 강민식, 2013.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軍史』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8쪽.

서 이성산성은 더 이상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성에서 주거지가 성벽을 파괴하면서 조성된 것과 관련 있다고 하겠다.

IV. 신라의 북진로와 550년 道薩城 전투

앞에서 증평지역에 신라가 진출한 494년 이후 이성산성은 점차 퇴락한 것을 언급하였다. 증평에 진출한 신라는 보다 높은 위치인 추성산에 산성을 쌓아 북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이성산성의 향배를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신라는 474년 문의지역까지 진출한 후 백제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신라가 문의-회인-보은의 경계에 머무르다 청주지역을 차지한 것은 494년 살수지원 전투 이후였다. 지금까지 신라가 청주지역을 차지한 것은 6세기 중엽으로 보았는데,³⁷⁾ 살수지원 전투를 고려할 때 이보다 앞서 5세기 말 쯤으로 올려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백제와 신라 양국 간에는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정황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 동성왕은 498년 沙井城을 쌓고 501년 炭峴 設柵을 통해 신라에 대비하고 있다. 바로 494년까지도 두 나라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왕이 신라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연유에 의한 것일까. 이미 축성과 설축에 앞서 496년과 이듬해 고구려와 공방을 주고받던 牛山城 전투에 더 이상 구원병을 보내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당연히 496년부터 백제와 신라 양국 간 동맹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산성 전투에 앞서 그해 2월 가야가 신라에 평을 바치

37) 梁起錫, 1999.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文化史學』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375쪽.

는 등 가야의 신라 접근으로 배후의 우군이었던 가야의 이탈 조짐이 백제군의 구원활동을 머뭇거리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백제가 구원군을 보낼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구원이 가능한 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곧 泥河 근처의 우산성으로 통하던 교통로를 상실한 때문으로, 그것은 신라가 그 사이를 차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백제군이 남한강 상류 일대의 신라군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청주와 증평, 괴산을 경유해야 하지만 이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면서 병력 이동은 신라의 양해 하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살수지원 전투 직후 신라가 증평지역을 차지하면서 백제군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신라의 영역을 지나야 하면서 동성왕은 점차 신라의 의도를 간파하여 오히려 신라의 공격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도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을 보다 이른 시기인 5세기 말경으로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한다. 물론 이후 한동안 양국간의 전투 기사가 없다는 점은 일단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을 용인한 백제가 보다 서쪽인 청주지역 배후에 산성을 쌓고 신라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은에서 진천에 이르는 산성 배치를 보면, 보은 삼년산성-미원 낭성산성·구라산성-내수 낭비성-증평 두타산성-진천 도당산성이 남북선상에 가깝게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이들 산성들은 일정한 규칙성이 보인다.³⁸⁾ 이들 산성은 대략 10km 안팎의 거리를 두고 전망이 뛰어난 고지와 그 사이를 택해 산성을 배치하였다. 또한 각 산성은 둘레와 형식이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산성들은 모두 둘레 1km 이내의 크기로 평면 형태는 삼태기형 또는 사모봉형이다. 특히 이들 산성들은 산맥의 정상부와 평지에 솟은

38) 각 산성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낭성산성	구라산성	낭비성	두타산성	도당산성
둘레(m)	575	872	733	918	850
형식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사모봉형
해발고도(m)	346	484	255	598.3	201.6

산자락에 교차 축성한 특징을 보여 마치 징검다리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일정한 형식과 크기를 가진 산성들이 남북 축선상에 배치된 것은 신라군의 북진에 따른 연이은 축성을 보여준다 하겠다.³⁹⁾

이러한 정황은 이미 5세기 후반 문의-회인-보은 지역의 경계에 떠 무르던 신라의 북쪽 경계가 5세기 말 이후 급격히 북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라가 중평을 지나 진천에 닿은 시점의 하한은 기록에 따라 595년 김유신이 태어나기 직전 김서현이 진천의 태수로 부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신라는 6세기 중반 이후 진천지역에 고분을 조영하였고,⁴⁰⁾ 또 551년 백제와 신라 양국이 한강 유역까지 차지한 것을 보면 늦어도 그 이전에 진천에 진출한 것이 분명하다.

반면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청주지역에 진출했다는 근거의 하나는 550년 道薩城 전투이다.

11년(550) 봄 정월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 異斯夫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쳐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군사 1천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⁴¹⁾

위 기사는 550년 백제와 고구려군이 서로 도살성과 금현성을 빼앗았으나 결국 신라가 두 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본기 기사에 보이지 않던 내용이 이사부 열전에 보이는데, 고구려군이 금현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니 이사부가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고 한다. 고구려군은 백제로부터 차지한 금현성을 신라군에게

39) 강민식, 앞의 글(2013), 229~230쪽.

4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오창~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文化遺蹟 試掘·發掘調查報告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1) 『삼국사기』 진흥왕 11년(550); 같은 책, 성왕 28년, 春正月 王遣將軍達己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圍金峴城; 같은 책, 양원왕 6년, 春正月 百濟來侵陷道薩城, 三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取二城.

다시 빼앗기자 이 성을 재차 공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살성 공취에 대해 백제의 반발이 보이지 않은 반면, 고구려는 금현성 탈환을 위해 군사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백제와 신라 양국은 연합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공취한 산성을 신라가 차지한 후 고구려군의 공세도 막아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백제와 신라가 각기 고구려를 상대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도살성과 금현성은 삼국의 경계에 위치한 관계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공동작전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기사는 도살성과 금현성의 위치 비정을 통해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도살성은 지금의 두타산성과 이성산성 일대로 비정한 이래,⁴²⁾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 반면 금현성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연기군 전동면과 전의면의 경계에 있는 금성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⁴³⁾ 나아가 이성산성을 488년 백제가 쌓은 沙峴·耳山城 중 이산성으로 보고, 494년 살수지원 전투 이전에 고구려가 차지하여 550년까지 점령하였다는 것이다.⁴⁴⁾

이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도살성의 비정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평지역의 첫 지명은 道西縣이다. 그런데 ‘本高句麗’의 道西縣, 또는 도살성과 두타산(성)의 ‘두타’가 음사한 이유로 550년의 도살성을 증평 일대로 비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이성산성에서 6세기 중반 이전의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불교식 지명인 두타가 과연 이 때 사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성산성을 고구려가 60년 가까이 점유했다면 그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더구나 이성산성의 축조·운영 시기와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도서현과 도살성, 그리고 도살성과 두타산이 음사한 이유로 도살성을 증평에 비정한다면 도살성을 천안의 고호인 ‘東西兜率’에 착안

42) 閔德植, 앞의 글(1983), 47쪽.

43) 梁起錫, 2002. 「高句麗의 忠州地域 進出과 經營」 『中原文化論叢』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73~74쪽.

44) 閔德植, 앞의 글(1983), 43~44쪽, 47쪽.

하여 천안으로 비정한 견해⁴⁵⁾와 그다지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550년 기록의 도살성을 두타산성과 지명의 유사함으로 위치를 비정한 점은 아무래도 궁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타산성은 추성산에 있던 산성을 이르고 있어 이 산성을 고구려의 도살성으로 비정하기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까지의 이해를 쫓아 도살성을 충북 증평에, 금현성을 세종 전의에 비정한다면 고구려군이 서쪽의 금현성을 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때 충주지역에 거점을 둔 고구려군은 증평[도살성]을 우회하여 진천 방면을 통해 연기 지역에 접근했을 것이다. 단, 진천지역을 고구려군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추론이다. 그런데 484년의 母山城을 진천 대모산성으로 비정하였을 경우⁴⁶⁾ 기록에는 신라가 백제 구원군의 도움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도서현이나 도살성을 의식한 나머지 진천지역이 484년 이후 ‘언젠가’ 고구려 소유로 바뀌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도살성은 김유신의 참전이 있던 649년(진덕왕 3) 전투에도 등장한다. 이 기사는 같은 책 열전에도 자세한 기록이 보여 550년 도살성 전투에 참전한 이사부처럼 김유신의 가계 전승을 전제한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백제와 신라 양국은 무주-합천 방면에서 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물론 649년의 도살성도 두타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⁴⁷⁾ 550년 기사와 함께 위치 비정에 있어 주저되는 바가 적지 않다. 실제 도살성의 위치 비정은 550년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649년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교전 지역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도살성 위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성산성이나 두타산성에서 도살성을 특정할 만

45) 李丙燾 역주, 1983.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87쪽.

46) 閔德植, 1980. 「鎭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한국사연구』 29, 41쪽.

47) 閔德植, 앞의 글(1983), 53쪽.

한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거나 고구려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위치 비정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도살성을 두타산성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두타산성이 486~494년 사이에 축성된 것이라면,⁴⁸⁾ 60년 가까이 고구려가 이곳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고구려의 도살성에 대한 이해의 전환이 필요한데, 필자는 고구려 故地에 대한 시간의 중첩성을 생각하고 있다. 9주로 나뉜 통일신라의 지방 편제를 옛 삼국의 형세를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획일적인 구분을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고구려 고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군현의 설치와 운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고구려 고지의 연원 중의 하나는 혹 궁예-왕권의 활동 반경이 중첩된 결과로 보고 싶다. 실제 문헌기록에서 견훤의 백제와 궁예의 고구려를 차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국사기』 편찬 당시의 오류와 혼동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5세기 중반 이후 삼국의 접경이었던 충북지역의 고구려 고지는 두 시기의 중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V. 都西 · 도안현과 이성산성

신라 都西縣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최근 중평 미암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도서현의 면모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중평 미암리유적의 다-2지구에서 석실분 1기가 조사되었다.⁴⁹⁾ 석실분은 횡구식 또는 횡혈식의 장방형으로 삼국통일 전후한 시기에서 점

48) 閔德植, 앞의 글(1980), 46쪽.

49)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曾坪 彌岩里遺蹟Ⅱ - 曾坪 地方産業團地造成敷地內 文化財 發掘調査 -』, 중평군.

차 퇴화하는 양식이며 출토유물인 고배와 뚜껑을 통해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 단 1기에 불과하지만 중평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후 조영한 무덤으로 현재까지는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나 중평지역에서 신라 고분이 희박한 것은 인근 진천 교성리 일대에서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영된 것과 비교된다. 실제 『삼국사기』 지리지에 흑양군에 소속된 도서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군현체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실제 신라 도서현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통합 이후 신라 도서현이 운영되던 시기의 이곳 주민들의 주거형태는 인접한 다-1지구의 주거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주거지 한쪽에서는 ‘ㄱ’자형에서 ‘T’자형으로 변하는 과도기의 구들 양식과 주름무늬 병 등 출토유물을 통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에 걸친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거지도 1기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적어도 석실분과 함께 당시 도서현의 터전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신라 도서현이 운영되던 시기의 이성산성은 신라의 진출 이후 일단 폐성된 후 북쪽의 추성산성이 도서현의 배후 산성으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성산성은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성산성에 비해 공방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삼국통합 후 한동안의 평화기에는 더욱 이성산성의 필요성은 감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후 늦어도 고려 초에 이르러 이성산성의 북성이 다시 활용되고 있다. 이성산성 남성에서는 신라계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일단 이 지역에 신라가 진출한 후 남성은 폐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북성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어, 평지의 치소와 북성이 함께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그런데 이성산성 북성과 추성산성을 조합으로 하는 산성이 재활용되는 시점은 신라 말로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바로 중평지역에

50) 서영일, 앞의 책(1999), 95쪽.

근거한 호족세력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증평지역의 호족세력은 자위수단으로 구릉성 산성과 임보용 산성을 겸비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신라 말 고려 초 증평지역의 호족세력의 실체는,

왕이 馬軍將軍 洪儒, 庾黔弼 등을 보내 군사 1천 5백을 거느리고 鎭州에 주둔하여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道安郡에서 아뢰기를, “靑州에서 비밀히 후백제와 서로 和好를 통하며 장차 반역하려 합니다.” 하므로, 왕이 마군장군 能植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鎭撫케 하니 이로 말미암아 반역하지 못하였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원년]

고 하여 고려 건국 직후 도안현의 지역세력은 청주 호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 반란의 징후를 왕건에게 알린 집단이다. 아직까지 증평지역의 호족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으나 기록의 道安郡은 고려 건국 직후까지 이 지역에서 엄존하던 세력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평지역의 호족은 바로 배후의 이성산성 복성과 추성산성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왕건 즉위 후 청주의 지역세력을 제어하여 전황의 향배를 결정할 만큼 도안현의 역할이 커다란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안현의 지역세력은 친왕건계로 나눌 수 있으며, 후백제군의 활동이 증평에서 지역에 그치는 데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건 세력이 궁예를 축출한 후 운주·공주 일대의 호족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증평과 진천은 친왕건계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왕건이 마군장군 홍유와 유금필을 보내 진주(진천)에 주둔케 한 것⁵¹⁾은 바로 청주 호족의 동향을 고려한 것이며, 특히 도안현에서 청주의 반역을 아뢰는 것은 도안현이 왕건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지역임

51) 『고려사』 권92 열전5, 洪儒.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건국 직후 도안현 지역세력의 동향은 왕건의 후삼국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天安의 예처럼 도서에서 도안으로 지명이 바뀐 것은 왕건에 우호적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고려시기 도안현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삼국통합 이후 신라 도서현의 치소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미암리 일대의 석실분과 주거지를 살펴보았다. 미암리 유적에서 나타난 고려시기의 고고학적 정황은 통일신라시기와 연결된다.

미암리 가지역에서 고려시기의 1·2호 건물지를 확인하였다.⁵²⁾ 이곳 건물지는 이곳에서 수습한 청자를 통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친 유적으로 보았다. 특히 1호 건물지는 3차에 걸쳐 초·개축한 것으로 ‘ㄷ’자형 평면 구조에 온돌 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안현 치소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다-2지구에서는 출토된 청자를 통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수혈주거지를 조사하였고, 같은 지구 내에서 같은 시기로 편년되는 청자대접이 출토된 도기가마터를 확인하였다.⁵³⁾

이처럼 미암리 일대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흔적들은 이곳이 바로 고려 도안현의 치소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쪽 가까이에 시화역터가 자리하고 있고, 마침 일제강점기의 지도(1918)에 시화 마을 자리를 道安이라 한 것도 참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 전기의 청자편이 수습되는 이성산성 북성은 늦어도 고려 초부터 도안현의 배후성 혹은 鎭山으로 기능하였고, 같은 유물이 수습되는⁵⁴⁾ 추성산성은 입보가 가능한 산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자료 외에 실제 도안현의 모습을 살펴볼 만한 자료

5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曾坪 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曾坪 彌岩里遺蹟 I』, 중평군.

53)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曾坪 彌岩里遺蹟 II - 曾坪 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文化財 發掘調査 -』, 중평군.

54) 閔德植, 앞의 글(1980), 44쪽.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도안현 남쪽에 청당현이 설치되면서 중심이 점차 옮겨가 끝내 두 현을 통합하여 청당현 자리에 청안현을 설치한 것과 관련 있다고 하겠다.

한편 도안현에서 청안현으로의 변화 과정은 조선 초기의 지리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기의 증평은 바로 청안현에 소속된 곳인데, 청안의 연혁은 조선 초 『고려사』와 『세종실록』에,

道安縣은 본래 고구려의 道西縣이었다. 신라 경덕왕이 都西(현)로 이름을 고치고 흑양군의 頡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종 9년에 來屬시켰다. 靑塘縣은 달리 靑淵縣이라 하였는데,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부르고(본목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어 道安을 겸임케 했다.” [『고려사』 권56 지10 地理1, 楊廣道 淸州牧 道安縣]

청당현은 고려 초에 청주 任內에 붙여 淸淵이라고도 했는데, 뒤에 감무를 두어 道安을 겸임하게 하였다. 도안현은 본래 고구려의 道西縣인데, 신라 때 都西로 고쳐 黑壤郡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道安縣으로 고쳐 顯宗 9년에 청주 임내에 붙였다. 본조 太宗 병자년에 두 현의 백성이 적고 땅이 좁으므로, 합하여 淸安으로 하고 감무를 두었는데, 태종 13년 계사년에 현감으로 고쳤다.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靑安縣]

라고 하여 『고려사』 지리지의 도안현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에 붙여 1018년(현종 9) 청주목에 속하게 하였고, 고려 초에 새로이 청당현(청연현)을 두고 감무가 도안현을 겸임케 하였다는 것이다. 두 자료의 차이는 『고려사』가 도안현을 먼저 설명하고 청당현을 붙였는데, 『세종실록』에 이르러 청당현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당현(청연현)은 고려 초에 새로이 생긴 지명이라 할 수 있고,⁵⁵⁾ 고려시기를 거

55) 박종진, 2008. 「고려시기 ‘주현 속현 단위’ 설정 배경에 대한 시론 - ‘청

쳐 두 현의 위상이 바뀐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안현은 1018년(현종 9) 청주 관할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신라 도서현이 ‘本高句麗’의 漢州 흑양군 영현이었던 데 반해, 고려 도안현이 옛 웅주 소속이었던 청주 관할로 바뀐 점이다. 삼국시기의 도서현이 삼국의 접경으로 신라의 북진로 상에 위치한 관계로 한주에 속하였으나 삼국통합 이후 점차 서원경, 청주의 관할에 편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새로이 생긴 청당현의 감무가 ‘後에’ 도안현을 겸임케 한 것은 도안현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 도안현과 청당현을 합하여 청안현으로 고쳐 불렀다. 그렇다면 청당현에 해당하는 곳은 당초 도안현과는 다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도안현의 범위를 찾아보자. 도안현과 청당현은 조선시기 청안현의 남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청주목의 월경지, 조풍부곡이다.

청주목 … 越境處는 … 없어진 調豐部曲이 淸安으로 넘어 들어가 있으며 …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越耕處]

청주목, 고적, 吳根部曲 錫谷部曲 拜音所 楸子所 德平鄉 調豐部曲[淸安縣을 넘어서 들어간다.] 新銀所 閔身部曲 … [『신증동국여지승람』 15권, 청주목, 古跡]

여기서 청안현 지역에 調豐部曲이 있었다면, 조풍부곡의 위치는 어딘가. 현재 조풍부곡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의 ‘亡調豐部曲 越入淸安’이란 기록을 주목하면

주목지역’의 지리적 특징의 분석 -」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385쪽.

조선 초기 이전에 이미 조풍부곡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주목 역원조에 북쪽 4리에 調風院이 있고, 『여지도서』 청주목 방리조의 北江内二面に 調豐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북쪽 4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초기에 조풍부곡이 폐지된 후 원이 설치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리로 편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강내이면은 지금의 북이면 지역으로, 『여지도서』의 청주목 북강내이면 楸洞里(추학리 추동)도 북쪽 4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조풍부곡도 그 근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이면 옥수리에 떼주막이란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옛 도안현의 靜安部曲은 지금의 증평읍 초중리 定安(증안) 마을로 비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부곡이 삼국 이후 개간을 통해 새로이 형성된 新村이거나 고려 건국 때 반왕조 집단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편제된 것이라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⁵⁶⁾ 여타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조풍·정안부곡의 출현은 전자인 新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안현은 증평 서쪽 지역인 조풍부곡과 정안부곡을 포함한 이성산성 주위로 설정할 수 있다.⁵⁷⁾

이후 증평(청안) 일대의 주도권이 청당현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옛 도안현은 『여지도서』 단계에 이르면 북면이라 하여 옛 명칭을 완전히 상실하였다.⁵⁸⁾

그렇다면 삼국시기의 도서현, 곧 도안면 일대에서 고려 이후 청안현 치소, 청안면 일대로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안현이 폐현이 되고 치소도 옮겨간 것이라면 이제 이성산성의 역할은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백성이 적고 땅이 좁은’ 원인도 있지만, 이성산성과 도서·도안현의 치폐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

56) 박종기, 2012.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38쪽.

57) 반면 청당현은 지금의 보강천 남쪽 지역으로, 谷銀谷所·念谷所(증평읍 남하리 염실)·游筒所·齷谷所 등 4곳의 소를 포함한 특징을 보인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청안현, 古跡).

58) 『여지도서』 보유편, 청안현 방곡과 古跡.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안현의 철폐는 그나마 역할을 다하던 이성산성이 완전히 폐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고려 초 진산인 이성산성 북성과 입보용 산성인 추성산성의 조합으로 유지되던 도안현의 형세가 청당현-청안현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동여지도> 등에 청안현 관내에는 추성산성을 제외하면 古城이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란 등에 입보할 산성은 이때도 추성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중평 이성산성의 축성과 운영, 그리고 폐성 과정을 군현의 치폐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종래 이성산성은 柵城山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리지를 분석한 결과 추성산은 지금의 두타산 자락의 산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성산성을 추성산으로 보는 것은 실제 지리지의 거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늦어도 지금의 토축 산성을 二城山城으로 인식한 것은 1899년 직전, 그리고 尼聖山城 북성의 제원을 파악한 것은 그나마 일제강점기였다. 그렇다면 지리지 등에 언급된 중평지역의 두타산, 추성산(지금의 두타산성 자리), 그리고 이성산은 별개의 지명으로 추성산성과 이성산성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성산성의 축성 시점은 4세기 전반대, 혹은 4세기 후반경으로 나누어 있으나 주거지와 성벽의 중복 상태를 고려하여 4세기 후반대로 보았다. 이후 이성산성은 백제의 남방 경영의 거점성으로 기능하다가, 4세기 말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다시 증축을 통해 강화된 듯하다.

이성산성의 실질적인 폐성은 5세기 중반 삼국의 대치선이 남한강 상류에 형성되면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494년 살수지원 전투

를 계기로 미호천 일대에 신라가 진출하게 되었고, 이후 신라군은 추성산성을 쌓고 북진로를 개척함으로써 이성산성 남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6세기 중엽에 이르러 다시 백제와 신라 동맹군과 고구려의 대결이 펼쳐졌다. 그런데 이성산성은 이후 신라의 북진로에서 벗어나면서 산성의 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50년 전투의 道薩城은 지금의 조사결과에 따라 두타산성과 이성산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이곳 일대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흔적이 찾아지기 전까지 일단 지명비정을 보류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그것은 도살성의 비정이 6세기 중엽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7세기 중엽 백제·신라의 대치선을 결정짓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삼국시기부터 연원을 가진 도안현은 고려 초 새로이 생긴 청당현으로 중심을 옮겨가면서 폐현이 되었다. 이때 한동안 도안현의 진산으로서의 배후성이었던 이성산성 북성도 폐성되면서 이성산성의 역할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논문접수: 2013. 11. 10, 심사시작: 2013. 11. 20, 심사완료: 2013. 12. 2]

주제어 : 이성산성, 추성산, 사현, 이성산(二城山), 이성산(尼聖山), 도살성(道薩城)

【참고문헌】

- 강민식, 2013.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軍史』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민덕식, 1980. 「鎭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한국사연구』 29, 한국사연구회
- 민덕식,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研究』 36, 한국사학회
- 박종기, 2012.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 박종진, 2008. 「고려시기 ‘주현 속현 단위’ 설정 배경에 대한 시론-‘청주목지역’의 지리적 특징의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 박중균, 2010. 「美湖川流域 原三國時代 墳墓와 社會集團」,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균, 2013. 「증평 이성산성 출토 토기 및 주거지의 성격과 편년」 『증평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와 사적화 방안』, 한국성곽학회·중원문화재연구원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성정용, 2012. 「曾坪 二聖山城 出土 土器樣相과 그 性格」 『湖西考古學』 27, 호서고고학회
- 양기석, 1999.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文化史學』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양기석, 2002. 「高句麗의 忠州地域 進出과 經營」 『中原文化論叢』 6,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양기석, 2012.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오욱진, 2012. 「백제의 중원지역 진출 시기와 성격」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이병도 역주, 1983.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 장준식, 2011. 「증평 이성산성에 관한 문헌검토」 『증평 이성산성 정

- 비·활용방안을 위한 기초학술세미나』, 중원문화재연구원
- 장창은, 2010. 「5~6世紀 高句麗의 南下와 漢江 流域의 領域方向 -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高地’의 實際(Ⅱ) - 』 『白山學報』 88, 백산학회
- 조상기, 2007. 「청주지역 원삼국~백제시대 생활유적 토기 상대편년 연구」 『先史와 古代』 26, 한국고대학회
- 차용걸, 2013. 「증평 이성산성의 성격과 특징」, 『증평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와 사적화 방안』, 한국성곽학회·중원문화재연구원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충청북도), 괴산군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淸原 大栗里·馬山里·楓井里遺蹟』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5. 『淸原 狼臂城 地表調査 報告書』, 청원군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증평 증천리 유적 - 증평 초중~장동간 도로공사 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 증평군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曾坪 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曾坪 彌岩里遺蹟 I』, 증평군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曾坪 彌岩里遺蹟 II - 曾坪 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文化財 發掘調査 -』, 증평군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a.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 완료약보 고서 -』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11b. 『曾坪 二城山城 I - 南城 南水門址 -』, 증평군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2011c. 『증평 이성산성 정비·활용방안을 위한 기초학술세미나』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曾坪 二城山城 I - 南城 北東門址 -』, 증평군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증평 이성산성 북성(4차)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0. 『증평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부지내 증평 송산리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1. 『曾坪 石谷里 遺蹟 - 증평 대중골프장 조성
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8. 『報恩 味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보은군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淸原 謳羅山城』, 청원군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오창~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文化遺蹟 試掘·發掘調査報告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忠淸專門大學博物館, 1997. 『曾坪 二城山城』, 충청북도증평출장소

<ABSTRACT>

Jeungpyeong Yiseongsanseong and Doseo(道西) · Doseo(都西) · Doanhyun(道安縣)

Kang, Min-sig

This research study examines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closure of Yiseongsanseong in Jeungpyeong.

Yiseongsanseong has been believed to had been in Chuseongsan; however, the analysis of geography and the local map indicates that it was located at the skirt of Sahyun. Sahyun. is the former name of Yiseongsan, before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Yiseongsanseong was built by Baekje in the late 4th century for southern territorial management and security. King Gwanggaeto of Goguryo, afterward, fortified its security through the reconstruction after his southern expansion. The northern part of Yiseongsanse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oguryo's military activity.

In the mid-5th century, its value as a strategic military post gradually diminished as the battles among the Three Kingdoms moved eastward of Jeungpyeong.

Later, Silla gained the control of Jeungpyeong through Salsu field combat in the year of 494. Since Silla constructed Dutasanseong for the northern expansion, Yiseongsanseong was no longer used.

Although Dosalseong during the battle in 550 has been considered as a part of both Yiseongsanseong and Dutasanseong, there were found no traces related to Goguryo. This indicates that Dosalseong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Cheongju region at large

rather than as a separate fortress.

After the set-up of the managerial office of Doanhyun in the southern part of Yiseongsanseong, Yiseongsanseong served as a supporting post for a period of time. When Doanhyun was merged into Cheonganhyun, however, Yiseongsanseong lost its function as a fortress and its traces also got lost in the historical record.

Key words : Yiseongsanseong(二城山城), Chuseongsan(柵城山), Sahyun(巳峴), Yiseongsan(二城山·尼聖山), Dosalseong(道薩城)

